

高麗時代の磨崖佛

鄭永鎬

一、概 觀

高麗時代に 이르러도 역시 前代와 똑같이 佛教가 국가적 종교, 혹은 王室佛敎로 크게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護國佛敎의인 성격은 先代에서 이 시대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정착되어 國初부터 많은 국가적 사원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開京에 法王寺, 王輪寺, 慈雲寺, 內帝釋寺, 舍那寺, 天禪寺, 新興寺, 文殊寺, 圓通寺, 地藏寺 등의 十大寺刹을 창건하였다던가 또는 都城 안에 七〇區의 佛寺가 있었다는 기록은 고려가 佛敎國이었음을 연상케 하며 또한 佛寺建立의 정도도 아울러서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高麗 一代를 통하여 국가적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불교적인 모든 造營이 활발하게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성황속에서 그 중심을 이루는 佛像 역시 많이 造成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많은 高麗佛像의 遺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前代에 비하여 佛像造成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고 있다. 즉, 오늘날 볼 수 있는 신라시대의 불상은 지역적으로 볼 때 대체로 慶州 부근에 밀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것들도 옛날 신라의 領域이었던 嶺南地方에 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는 변화를 보이는 데 이러한 변화는 時代相의 변혁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인 추세는 王

室佛敎의 입장에서 출발한 古代 佛敎가 수백년이 지나면서 점차로 大衆化된 결과라고 하겠다.

新羅末에서 高麗初期는 眞骨과 慶州中心의 新羅的인 체제에 항거하는 지방세력이 크게 대두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방사회에 社會的, 宗敎的인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독자적 영역을 나타내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대적 변동기를 수습하면서 등장한 新生 高麗國家는 실제로 이와 같은 지방세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흡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러는 순수한 地方세력에 의한 佛寺의 造營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상황에 불상조성을 자극하는 護國佛敎의인 입장이나 산간계곡으로 佛寺를 誘致했던 風水地理說의 유행, 또 地方民들의 불교적 결속을 튼튼히 해주는 舊來의 香徒조직 등이 결부되어 더욱더 불상조성의 가능성이 강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불상은 우선 佛像彫刻의 緣由부터가 前代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言及하였듯이 고려의 佛敎는 護國佛敎였다. 따라서 國家的 寺院의 건립이 이루어졌고 국가적 불교정책에 의하여 불교적인 造形美術의 隆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말기에 쇠퇴하였던 불교미술에 새로운 활력과 무대를 주었으며 아름답고 섬세한 것에만 치우쳤던 당시의 作風을 止揚하고 巨大한 규모와 웅장한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한 것이다.

高麗初期에는 신라로부터 계승된 樣式과 造成手法위에 國力의 안정과 충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巨大하고 정연한 造形美術品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기운은 넓게 분포되어 각 지방에서도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一三세기 중엽에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후로 그들의 세력이 지배하던 末期까지는 초기부터 一二期까지의 융성했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는 앞선 前期의 造形을 모방하여 겨우 그 양식과 수법등을 이어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우수한 巨作이나 불만한 作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몽고족의 지배 밑에서 그들의 독특한 喇嘛의인 양식이 傳來되었으므로 高麗의인 美術이 활발하게 발달할 수가 없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위에서 佛像을 볼 때, 前期에는 신라식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음은 佛敎國이었던 고려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後期에 이르러서 特異한 造成手法이 유행하였던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新興 高麗國의 활기찬 初期石佛로 巨大한 灌燭寺石造彌勒菩薩立像(보물 一一八호, 속칭 恩津미륵)을 들 수 있으니 높이 一八、一二m의 巨像인 것이다. 造成年代를 제 四代 光宗 一九年(九六八)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시 初期의 힘찬 기운이 잘 나타나 있는 作例라 하겠으며 이 巨作과 같은 類型으로 大鳥寺石造彌勒菩薩立像(보물 二一七호)과 禮山 插橋石造菩薩立像(보물 五〇八호)등을 들 수 있으니 이 兩石佛 역시 後期로 떨어지지 않는 一世紀—二世紀에 걸치는 石像으로 高麗의 初期의인 기상이 잘 나타나 보인다.

磨崖佛에 있어서도 圓刻佛과 마찬가지로 역시 前代인 新羅時代磨崖佛의 樣式을 답습하고 있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新羅下代로부터 末期에 이르는 사이에 유행했던 小規模의이고 線彫의 形式化된 作風과는 달리 陽刻도 強하고 立像이던 坐像이던 그 규모는 거창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高麗前期의 巨大한 磨崖佛은 대체로 各部가 大形化의 경향을 띠어서 웅장한 初期의 建國의인 기운은 잘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반면에 彫刻의인 우수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巨軀의 胴體처리와 各部彫刻의 細密한 표현이 如意치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高麗時代의 佛像造成은 前代인 新羅時代에 比하여 보다 全國的으로 擴散分布되었던 바 이렇게 되었을 경우 王室을

중심한 王都 일대에는 물론 中央 貴族이나 地方 豪族들의 보호와 후원으로 圓刻佛像과 磨崖佛像이 造成되어 역시 各地方에 그런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高麗時代의 磨崖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美術史研究에서 특히 佛像研究에서 絕對年代를 가지고 있는 遺品은 그 重要性을 首位에 놓아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그런데 近年에 이르기까지 軀軀의 磨崖佛에 造成銘이 있어 정확한 造成年代를 알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注目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點頭되는 바 이 造成銘에 보이는 絕對年代의 磨崖佛은 記銘이 없는 磨崖佛의 造成年代 推定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高麗時代 磨崖佛 造成의 背景과 실제 문제등을 개관하였거니와 이제 實物들을 통하여 高麗時代에 造成된 磨崖佛像들을 絕對年代를 가지고 있는 遺品을 비롯하여 坐像、立像등의 各形態別로 분류하여 고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二、絕對年代의 磨崖佛

현재까지 알려진 磨崖佛 자체에 銘文이 있어 造成 絕對年代를 알 수 있는 磨崖佛은 廣州校里太平二年銘磨崖藥師如來坐像(九七七 A·D)、利川太平興國六年銘磨崖半跏像(九八一)、高靈開浦洞雅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九八五) 등이라 하겠는데 이들의 各細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州校里太平二年銘磨崖藥師如來坐像

(높이 九三cm, 경기도 廣州郡 東部面 校里, 圖 一、참조)

廣州郡 東部面 春宮里에서 동남쪽으로 약 一m 정도 되는 산골짜기에 조그만 폭포가 있고 그 옆에 磨崖佛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이곳을 「客山瀑布」 혹은 「藥師골」이라고 부르는데 원래의 地名은 校里로 되어 있다.

현재 이 폭포수의 왼쪽편에 최근에 세워진 절이 있는데 이 절터와 폭포수 上部의 넓은 地帶가 옛터대로 보이나 그다지 큰 절은 아니었던것 같으며 庵子정도로 추측되는데 폭포수 옆에 藥水가 있다. 이 藥水로因하여 옆의 岩壁에 藥師如來像을 조각한듯 한데 여기에는 太平(興國) 二年의 銘文이 있어 특히 주목을 끄는 바이다.

이 佛像은 素髮의 머리위에 肉髻를 얹었고 가름한 얼굴에 눈은 가늘게 떴으며 입은 작은 편으로 꼭 다물었으나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다 귀는 큼직하고 목에는 三道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양쪽 어깨는 약간 처진듯 등글게 표현되었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옷깃이 한번 접혔는데 옷주름은 가는 돌출선으로 표시되어 流麗하며 사실적이다.

手印은 오른손은 들어올려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結跏趺坐한 무릎위에서 약항아리를 들었는데 병에 시달리는 衆生을 구하려는 자비스러운 나타내고 있다.

光背는 三重圓으로 頭光과 身光을 나누었는데 주위에 火焰紋을 조각하였다. 臺座는 方形으로 伏蓮위에 二重臺石이 있고 그 위에 四개의 기둥으로 上座臺石을 받들고 있는데 五瓣의 仰蓮臺가 있고 각 瓣內에는 花文이 조각되어 있다.

부드러운 相好, 균형이 잡힌 몸매, 그리고 화려한 臺座등이 신라불상의 여운을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이 佛像의 오른쪽에 陰刻된 三行의 銘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 「佛在如陽乙重脩爲今上」 「皇帝萬歲願」 이 銘文에는 특히 史讀文이 섞여있어 주목된다. 서두에 보이는 太平二年丁丑은 中國의 三國時代인 吳의 年號로 二五七年, 또 梁의 年號로 五五七年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宋太宗의 太平興國二年丁丑(九七七)으로 본다. 太平興國을 「太平」으로만 부른 예는 「太平御覽」 등에도 있는데 여기의 太平二年丁丑은 고려 제五代 景宗二年(九七七)에 해당한다. 또한 佛像의 모습이나 조각기법 등으로 보아도 高麗初期의 造成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磨崖佛은 岩壁이 험소한 제한적인 사정에 따라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당시의 양식 수법은 잘 나타나고 있어 注目된다.

利川太平興國六年銘磨崖半跏像

(높이 三、二m, 경기도 利川郡 麻長面 長岩里, 圖二、三, 참조)

長岩里의 地方道 바로 길가의 「미륵바위」라 칭하는 岩壁에 가득히 大한 半跏像이 조각되어 있다. 바위의 下端은 넓고 上端이 좁아들어 마치 二等邊 三角形과도 같은데 그 앞면에 半跏像을 조각하고 뒷면은 그대로 평평하며 中下部 東端끝으로 銘文이 새겨져 있다. 바위가 東南向이어서 半跏像도 東南向하였으며 오후에는 그늘이 된다.

南面은 전체적으로 보아 뒷면보다 오히려 거치른 편인데 治石한 흔적은 없다. 岩面에 그대로 조각하였으므로 一見하여 치졸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러므로 頭像에서도 相好나 半跏한 무릎부분은 岩面의 突出部를 이용하였음인지 陽刻이 강한 편이고 다른 부분은 약한 편으로 어떤 부분은 線影에 가깝기도 하다.

화사한 蓮華座위에 半跏坐하였는데 通式과는 정반대로 오른쪽발을 내려서 仰蓮座위에 놓고 왼쪽발은 구부려 오른쪽 무릎쪽으로 놓은 半跏像이다. 머리에는 三山形의 寶冠을 썼는데 左·右 上端끝에는 금속제의 장식이 있었던 흔적으로 지금도 그 파편이 圓孔內에 고착된 채 남아있다. 正面 中央에는 立狀形으로, 葉의 單蓮이 있으며 그 中央 一瓣內에는 작은 化佛 一軀가 조각되어 있다. 寶冠正面 밑으로는 곱게 빗은 寶髮이 마치 連珠紋과도 같이 보이며 左·右로는 寶髮이 흘러 양쪽 귀 부분으로 하여 어깨를 덮고 있다.

相好는 약간 비대한 편으로 양쪽 볼이 넓어져 方形에 가까우나 그래도 원만상이라 하겠다. 이마는 넓으나 白毫가 없고 兩眉가 뚜렷하며 鼻樑과 연결되었는 바 양쪽 눈은 마멸로 正視의 여부를 분간할 수 없으며

입은 아주 작게 표현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보이지 않으며 간단한 장식
이 있었던 듯 하나 현재는 마멸로 뚜렷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렵다. 양쪽
귀는 짧은데 耳朶의 표현이 返轉되어 있어 흥미롭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 內掌하여 연출기를 잡고 있는데 그 줄
기는 어깨 쪽으로 하여 寶冠上端 가까이 에까지 뻗어 줄기 끝에 연출되어
혀있고 어깨 윗쪽에서 갈려나간 한 줄기에는 연실이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왼손은 왼쪽 다리 위에 편히 놓고 있는데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
다. 五指은 左·右手印 부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양쪽 손
목의 두 줄 팔찌 장식도 또한 그러하다 하겠다.

法衣는 通肩으로 양쪽 팔에 걸쳐 옆으로 퍼지면서 밑으로 흘렀는데 무
릎과 양쪽 발목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덮고 있으나 간소한 線彫로 처리하
고 있다. 半跏하여 구부린 왼쪽 무릎은 유난히도 큼직하게 표현하고 특
히 왼쪽 발끝부분을 오른쪽 무릎에 걸치게 하면서 조각한 다섯 발가락의
표현은 兩手印처럼 사실적이고도 인상적이다.

오른쪽 발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으나 발끝을 外向시켜 조각하여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足座는 화사한 蓮華座로 중앙에 큼직한 單
葉仰蓮이 있고, 그 左·右로 大小形의 單葉仰蓮을 돌리고 있어 그야말
로 蓮華속에 두툽한 발 하나가 보이며 비대한 足部와 蓮華座가 비교된
다고 하겠다. 足座 옆에는 타원형과도 같은 子房部를 중심하여 下部와
左·右 주위에 화사한 仰蓮座를 이루고 있는데 足座의 蓮華座보다 蓮瓣
이 크고 二重三重으로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 蓮華座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더욱 화사한 느낌을 주는 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
다. 장엄을 더하기 위한 것 같은데 蓮華의 형태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지는 他例와의 비교고찰, 혹은 장엄본상의
교리적인 배경등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이 半跏像에는 뒷면에 銘文이 있으므로 絕對年代를 알 수 있고 따라
서 이를 前後한 佛像의 年代推定에 있어서도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다.

銘文은 三行인데 첫줄에 「太平興國六年辛巳二月十三日」이라 보인다.
이것은 고려 제 5대 景宗六年(九八一 A·D)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고려 초기로서 지금으로부터 一〇〇〇여년 前이 되는 데 一〇世紀라면 造
形面에서 보았을 때 「신라말 고려초」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생 각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磨崖半跏像은 絕對年代를 가지고 있어 더
욱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 半跏像은 머리에 寶冠을 쓰고 특히 中央에 化佛이 배치되었으므로
觀音菩薩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이 半跏像의 呼稱은 「利川 長岩里 太平
興國六年銘 磨崖觀音菩薩半跏像」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磨崖半跏
像으로 三, 二m 높이에 達하는 遺例는 아직 없을 것이니 역시 高麗初期
의 거창한 기상이 표현된 一例가 아닌가 한다.

高靈開浦洞雅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

(높이 一, 五m, 경상북도 高靈郡 開浦面 開浦洞, 圖四, 참조)

현재 開浦洞마을 안쪽 산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이곳이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다. 三〇cm 두께의 얇은 板石에 조각하였는데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알개 陽刻하였다. 板石을 擧身光으로 삼았음인 지
윤곽에 약간의 굴곡이 표시되어 있다.

蓮華座위에 앉아 있는데 單葉의 仰蓮으로 蓮瓣끝이 예리하며 중심에
正面을 향하여 一重瓣을 두고 그 좌우로는 모두 비스듬하게 조각하
였다.

머리에는 三葉씩의 寶冠을 쓰고 그 중앙에 化佛 一軀가 조각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尊名이 觀世音菩薩임을 곧 알 수 있다. 寶冠 밑에는 머
리 양쪽으로 冠帶가 있어 垂飾과 寶髮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양쪽 귀 옆
으로 하여 어깨 못미처에서 멈추었다.

相好는 이마가 넓고 양쪽 볼이 약간 좁아 들었으며 양쪽 눈썹과 콧등
만이 뚜렷하나 눈과 입술은 분명하지 않으며 白毫孔이 큼직하게 남아 있



圖 1 廣州校里 太平二年銘 磨崖藥師如來坐像



圖 2 利川 太平興國六年銘 磨崖半跏像



圖 3. 利川 太平興國六年銘 磨崖半跏像의 搨本



圖 4. 高靈開浦洞 雍熙二年銘 觀音菩薩坐像

다. 양쪽 귀는 짧으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없다.

양쪽 어깨에 걸친 天衣는 線刻으로 처리하였으나 流麗하게 흘러 양쪽 무릎을 덮고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 外掌하였으며 손목에는 장식이 완전하다. 왼손으로는 蓮을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줄기는 頭光에까지 올라가 蓮꽃을 피우고 있다.

光背는 板石 윤곽에 가득 차도록 線紋으로 陽刻하였는데 二條線으로 圓形의 頭光을 이루었으며 정상에 이르러 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또 二條圓光밖으로는 火焰紋을 조각하고 그 밖으로도 하나의 圓光을 陰刻하였다. 身光은 양쪽 어깨부분으로부터 二條線을 陽刻하여 표시하였으며 그 밖으로 화염문을 장식하였다.

이菩薩像은 전체적으로 보아 단조로운 線刻으로 陽刻의 표현도 강하지 못하여 平板的으로 균형과 조화의 정교성등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양쪽의 팔과 손의 크기는 胴體나 頭像에 비하여 조화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坐像 뒷면에 「雍熙二年乙酉六月二十七日」이라고 陰刻된 銘文이 있어 造成年代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雍熙二年은 高麗제 6대 成宗四年(九八五)에 해당하므로 高麗初期作임이 확실한데 板石이라는 小形材料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初期의 거창한 기상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三山形의 寶冠과 相好, 큼직한 白毫孔은 蓮華座와 아울러 注目을 해야 할 것이다.

三、磨崖坐佛像

巨大한 岩壁을 利用해서 是역시 初期的인 기상을 잘 나타내듯 거창한 坐像들이 彫刻되었으니 北漢山 舊基里磨崖釋迦如來坐像、大興寺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法住寺磨崖如來倚像、大乘寺妙寂庵磨崖如來坐像、槐山院豐里磨崖佛坐像、禪雲寺東佛奄磨崖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역시 어느 한 정된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坐像

(높이 5m,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舊基洞、僧伽寺境內、보물 二一五호、圖 五、참조)

僧伽寺 뒷쪽 岩壁에 남쪽으로 향하여 조각되어 있는데 寶蓋와 蓮華座를 갖추고 있다.

素髮의 머리 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놓여졌으며 相好는 풍만하여 方形에 가까우며 양쪽 귀는長大하다. 눈과 코, 입등은 고려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눈꼬리나 입술이 강조되지 않아서 자비로움을 풍기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法衣는 右肩偏袒인데 비스듬하게 넓직한 옷깃이 있고 주름은 매우 流麗하고 활달한 刻線을 보여주고 있다. 두 팔을 지나치게 옆으로 벌리고 있는데 手印은 降魔印을 취하고 있다. 무릎 밑에는 화사한 仰蓮과 伏蓮의 蓮華座를 마련하고 있다. 머리 위의 寶蓋는 八角의 別石을 岩壁에 꽂았는데 下面에는 圓座를 중심으로 한 주위로 蓮華紋이 장식되어 있다.

佛像의 身部도 圓형이 잡혔고 조각수법도 우수하며 옷주름도 율동적이다. 岩面의 곳곳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앞에 前室 등의 어떤 木造架構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整齊된 相好와 衣文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十세

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月出山磨崖如來坐像

(높이 八、六m, 全라남도 靈岩郡 靈岩邑 會門里、국보 144호 圖 六、참조)

月出山 서쪽 봉우리인 九井峯 정상 가깝게 있는 岩壁에 새겨져 있는 거대한 磨崖佛로서 당당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주위의 景觀과 잘 어울려 壯觀을 이루고 있다.

海拔 八〇四m의 月出山에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佛事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지금은 建物址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佛像은 素髮의 머리 위에 높은 肉髻가 솟아있으며 相好는 몸에 비해 大圓의 方形에 가깝다. 눈꼬리는 약간 치켜올라갔으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어 엄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목에는 三道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身部에 있어서는 各部의 비례가 잘 조화되지 않고 가슴부분도 빈약하고 특히 結跏趺坐한 다리부분은 平板的이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옷주름은 線刻으로 왼쪽 팔에 걸쳐졌는데 다리 위까지 내려져 있다.

手印은 신라 후기부터 고려 초기에 坐佛像에 많이 유행하던 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光背는 岩壁 자체에 頭光과 身光이 陰刻되었는데 蓮華紋、火焰紋、唐草紋 등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臺座에는 法衣가 흘러내려 裳懸座를 이루고 있다.

이 佛像의 오른쪽 무릎 옆으로 오른손에 持物을 들고 있는 조그만 善財童子像이 浮彫되어 있다. 이 磨崖佛은 각부에서 소홀해진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고려 초기인 一〇세기의 巨大한 佛像彫刻의 한 유형으로 추

정된다.

大興寺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

(높이 4, 2m, 진라남도 海南郡 三山面 九林里, 보물 四十八호)
圖七, 참조)

大興寺 소속 庵子인 北彌勒庵의 主尊佛로 이 마애불의 岩面을 法堂안에 모시고 堂宇를 건축하였는 바 거대한 岩壁을 다듬고 여러좌상을 陽刻하였으며 頭光과 身光까지 표현하였다.

素髮의 머리 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솟아 있으며 相好는 풍만하고 양쪽 귀는 길게 어깨에까지 닿고 있다. 눈은 눈꼬리가 올라갔고 눈동자가 표현되었으며 입술은 두껍다. 무에는 三道가 있고 法衣는 通肩인데 왼쪽 어깨에 袈裟끈이 있고 옷주름은 평행선으로 도식적인 표현에 그쳤다. 手印은 降魔印을 결합하였으나 이 손도 부자연스럽고 결가부좌한 무릎위의 발도 어색하다.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빈약한데 밑으로 仰蓮座가 있고 頭光과 身光은 3條의 陰刻線으로 나타내었으며 그 안쪽으로는 아무런 문양이 없고 밖으로만 火焰紋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左·右로 二座씩의 飛天이 배치되어 있어 注目된다.

佛身은 상당한 陽刻이나 인체비례나 조각수법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造成年代는 相好나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十一세기경으로 추정된다.

法住寺磨崖如來倚像

(높이 5m, 충청북도 報恩郡 內俗離面 舍乃里, 보물 二一六호)
圖八, 참조)

捌相殿 西쪽의 巨大한 岩壁에 조각되어 있으며 佛像 바로 앞에는 拜

禮石이 있는데 倚像이어서 주목되는 불상이다.

螺髮의 머리 위에는 肉髻가 솟아있는데 마애불에서는 보기 드물게 나발이다. 相好는 둥근편으로 큰 눈과 두꺼운 입술 등이 高麗佛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앞에 들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장지를 쪼부렸고 왼손은 앞에서 수평으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다. 下體는 화사한 蓮華座위에 앉았는데 두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어 한국에서 보기 드문 倚像이다. 양쪽 다리는 상체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며 큼직한 蓮瓣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있으며 양쪽 무릎에서 발밑에까지 연꽃잎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불확실한 인체 파악이나 세부의 졸렬한 표현등이 커다란 암석을 대한 의지에 비하면 조각술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불상의 오른쪽으로 짐을 실은 말을 끄는 사람과 「말」앞에 꿇어 앉은 「소」등을 유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곳 法住寺의 창건설화와 관계있는 岩刻畫로서 義信祖師가 佛經을 실어오는 모습과 소가 佛法을 구하는 전설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목된다. 相好는 원만하나 각부의 다소 부자연스러운 비례 등으로 미루어 11세기경의 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大乘寺妙寂庵磨崖如來像

(높이 6m, 경상북도 聞慶郡 山北面 用頭里, 圖九, 참조)

妙寂庵 바로 아래쪽 山길 오른편에 병풍처럼 남향한 岩壁 동면에 거대한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다.

素髮의 머리위에 비교적 큼직한 肉髻가 놓였으며 양측으로 三枝의 草花文이 뽕같이 뻗치고 있는 것이 異例의이다. 相好는 가름한 편이고 두 귀는 길쭉하며 細長한 두 눈은 거의 감다실이 하였으며 큼직한 입과 입술은 두툼하다. 무에는 三道가 표현되었고 法衣는 通肩이며 가슴앞에

裙衣의 結帶가 있고 끈은 밑으로 처져 있다. 衣文은 양쪽 팔을 거쳐 무릎까지 내려졌으며 陰刻線으로 표시되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꾸부려서 맞대고 다시 약지를 꾸부렸으며 왼손은 팔을 수평으로 하여 다섯손가락을 조금씩 꾸부리고 있다. 結跏趺座한 무릎위에는 두 발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무릎 밑에는 七葉의 蓮瓣이 線刻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보기도문 大作으로 胴體는 물론이고 蓮華座의 刻線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相好의 조각수법이 특이하며 더우기 머리의 草花는 보기도문 일이다. 평면적인 가슴과 각부의 양식수법으로 보아 11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槐山院豐里磨崖佛坐像

(감실높이 3, 63m, 좌상높이 각 3m, 충청북도 槐山郡 延豊面 院豊里, 보물 97호, 圖 10, 참조)

院豊里 國道邊 岩壁의 높이 약 12m의 윗부분에 마련된 龕室안에 奉安되어 있는 2軀의 佛像으로 두像이 양식수법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磨損이 심하여 분명한 형태를 알 수가 없다.

相好는 둥근 편으로 눈, 코, 귀, 입등이 稚拙하나 미소를 띠고 있다. 반듯한 어깨와 빈약한 가슴등으로 強한 陽刻은 없으며 形式化된 느낌을 준다. 특히 腹部 밑으로는 마멸이 극심하여 거의 윤곽을 알 수 없으나 왼팔은 수평으로 놓고 오른쪽 팔은 밑으로 내린듯 하다.

通肩의 法衣는 무겁고 두터운 刻法을 보이고 있으며 옷주름은 圖式化된 느낌이다. 化佛이 조각되어 있는 光背도 마손이 심하여 세부적인 표현을 알 수가 없다.

이와같은 二佛並坐像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中國에서 매우 유행하였던 樣式이다.

이 佛像의 造成年代는 相好의 모습이나 衣文 처리 수법만으로 짐작하

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禪雲寺東佛磨崖如來坐像

(높이 13m, 전라북도 高敞郡 雅山面 三仁里, 圖 11참조)

現地の 遺跡에 의하면 「百濟의 威德王이 黔丹禪師에게 부탁하여 岩壁에 佛像을 조각하고 그 위 꼭대기에 東佛庵이란 空中樓閣을 짓게 하였다」는 巨大한 磨崖來像이 禪雲寺 도솔암에 오르는 길 옆 岩壁에 새겨져 있다. 현재는 공중누각은 없어졌으며 前室을 지었던 흔적은 남아있다.

이 如來像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까지는 뚜렷하게 陽刻되었으나 그 밑의 下體는 분명하게 조각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모양으로 미루어 보아 坐佛임에 틀림이 없다.

머리위에는 큼직한 肉髻가 높였으며 相好는 넓은 편으로 눈꼬리는 치켜올라갔으며 코는 뾰족하고 입술은 앞으로 내밀은듯 보이는데 이마에는 백호가 있다.

어깨는 평평하고 法衣는 通肩인데 몇자락의 옷주름이 보이며 허리에 서 등여맨 裙衣의 매듭이 선명하게 보인다.

높이 13m, 폭 3m의 巨佛로 고려 초기에 유행하던 大形 佛像임을 알 수 있는데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 투박한 인상을 주고 있어 역시 12세기경으로 뒤지는 作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圖 5. 北漢山 舊基里 磨崖釋迦如來坐像



圖 6. 月出山 磨崖如來坐像



圖 7. 大興寺北彌勒庵 磨崖如來坐像



圖 8. 法住寺 磨崖如來倚像



圖9. 大乘寺 妙寂庵 磨崖如來坐像



圖10. 槐山 院豐里 磨崖佛坐像



圖11. 禪雲寺 東佛庵 磨崖如來坐像

四、磨崖立佛像

磨崖立像에 있어서도坐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역시 巨大한 岩壁을 잘 이용하여 初期의 巨作을 彫刻하였으니 德周寺岩崖佛、天原三台里磨崖佛、金山磨崖菩薩立像、咸陽馬川面磨崖三尊佛像、洪城新耕里磨崖石佛、三川寺址磨崖如來立像、迦葉庵址磨崖三尊佛像、羅川里七佛石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德周寺磨崖佛

(높이 13 m, 충청북도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 보물 406호, 圖 12 참조)

德周寺 法堂址 뒷쪽의 巨大한 岩壁에 조각되어 있는 佛像으로 像의 좌우에 架構孔들이 남아있어 木造前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相好는 길고 비만한 편으로 턱이 축 늘어졌으며 목은 없고 얼굴과 手部가 붙어 있으며 가슴에 三道가 나타나 있다.

입체성이 없이 평평한 身體는 線刻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는데 通肩의 法衣를 걸쳤으며 옷주름은 圖式化된 同心橢圓形을 이루었는데 이런 형식은 「牙山坪村里石造藥師如來立像」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으로 고려시대 석불에서 가끔 보이는 양식이다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으며 양 옆으로 발리고 있는 발 밑으로 蓮華紋이 새겨진 臺座가 조각되어 있다.

이렇듯 비만한 얼굴과 평평한 신체 표현 등 조각수법에 있어서는 優作이 못되나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大形磨崖石佛의 하나로서 불상조각양

식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서 一〇세기 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天原三台里磨崖佛

(높이 7, 1 m, 충청남도 天原郡 豐歲面 三台里, 보물 407호, 圖 13 참조)

泰鶴山 산봉우리가 가까이 있는 巨大한 岩壁에 새겨진 커다란 佛像으로 下體는 거의가 綿刻인데 비하여 上體로 갈수록 뚜렷하게 浮彫되어 있다.

素髮인 머리위에 큼직한 肉髻가 솟아있고 얼굴은 풍만한데 코는 크고 입은 작아 균형을 잃고 있다. 양쪽 귀는 길어서 어깨에까지 내려졌으며 짧은 무에는 三道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발 밑까지 길게 늘어졌는데 대각선으로 표현된 袈裟는 고려시대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옷주름은 어깨와 양쪽 팔에서는 직선으로 흘렀고 가슴에서 허리 밑부분은 半圓形의 곡선으로 흘러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袈裟자락의 끝단은 線刻으로 처리하고 있다.

佛身의 크기에 비하여 팔과 손은 작은 편으로 양손을 가슴앞에 들이 올려서 왼손바닥을 위로 하고 오른손은 왼손위에 올려서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平平한 표현과 上體에 비하여 짧은 下體, 그리고 무디고 치졸한 조각수법 등을 보이는 이 佛像은 고려시대 마애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으며 造成年代는 一〇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金烏山磨崖菩薩立象

(높이 5, 55m, 경상북도 龜尾市 南通洞, 보물 490호, 圖 14, 참조)

金烏山 頂上峰 바로 밑의 岩壁에 조각되어 있는 立像으로서 像의 중심이 岩壁의 모서리에 있어 그 양 옆으로 조각한 색다른 構圖를 보이고 있다. 佛像 앞의 평평한 埜地에 주춧돌과 기와 조각들이 산란하고 암벽에도 木造架構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옛날에 寺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一善誌」에 의하면 普峰寺로 추정되기도 한다.

像은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튼 자세로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天衣자락을 살짝 붙잡고 있다. 머리 위에는 三面寶冠을 썼으며 相好는 길고 원만한 편으로 눈, 코, 입등이 整齊되었으며 목은 굵고 짧는데 가늘게 三道를 표시하고 있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線刻된 옷주름은 어깨에서 한번 접혀진 다음에 왼팔과 허리를 감싸고 흘러 내렸는데 하반신에서는 U字形의 주름을 보이며서 부드럽게 늘어져 있다.

光背는 舟形學身光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頭光은 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臺座는 一葉의 伏葉으로 된 單瓣蓮華紋이 조각되어 있다.

이 佛像은 相好와 身體등 各部의 양식수법으로 미루어 前代의 作風을 보이고 있는 10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된다.

咸陽馬川面磨崖如來立像

(높이 5, 8m, 경상남도 咸陽郡 馬川面 德田里, 보물 三七五호, 圖 15 참조)

馬川 다리 건너 德田國民學校 뒷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머리는 마

에불로서는 드문 나발이고 肉髻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相好는 풍만하며 눈은 길고 코는 크며 입은 一字로 딱 다물어서 아무런 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입가에 약간의 미소가 어딘듯 하다. 귀는 길어서 어깨에까지 닿았고 목은 짧고 三道가 있다. 通肩한 法衣는 비교적 얇게 표현되었는데 두 팔에서 가슴과 양쪽 다리로 흘러내린 옷주름은 힘없이 처져 있다. 法衣자락 밑에는 裙衣가 보이거나 주름이 없는 圓筒形이다. 양쪽 발은 큼직하고 발끝은 앞을 향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양쪽 손은 기형적으로 작는데 手印은 오른쪽은 與願印, 왼쪽은 施無畏의 印相을 취하고 있다.

光背는 岩面에 조각되었는데 胴體의 윤곽을 따라 蓮珠文으로 頭光과 身光을 표현하였고 그 바깥쪽으로 火焰文이 조각되어 있다. 臺座는 발 밑에 伏蓮과 그 밑에 方形의 받침이 있다. 이 佛像은 巨作이기는 하지만 평면적인 조각수법 등으로 다소 박력이 없어 보이거나 造成年代는 一세기경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洪城新耕里磨崖石佛

(높이 4m, 충청남도 洪城郡 洪北面 新耕里, 보물 三五五호, 圖 16, 참조)

龍鳳山 頂上 가까이 에 옷둑서 있는 속칭 「노각시바위」 岩壁 南쪽 面을 佛龕 형태로 움푹하게 파서 浮彫로 새긴 如來立像이다. 머리부분은 입체감이 있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線이 빈약하다.

머리는 素髮로서 큼직한 肉髻가 놓였는데 相好는 길고 풍만하며 눈, 코, 귀, 입등이 조화를 갖추었고 약간 미소짓는 표정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목은 짧으나 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깨는 둥글고 좁은데 通肩의 法衣를 걸쳤으며 옷주름은 線이 굵은 U字形으로 形式化되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로 가느다란 陰刻線으로 되며 배 밑에서 갈라지다가 무릎부근에서 V字形으로 다시 모아

졌다.

手印은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서 손을 짝 펴고 있으며 왼팔은 가슴부
분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外掌하여 施無畏印을 結하고 있다.

光背는 寶珠形으로 바위 앞면을 파서 天然光背를 이루고 있는데 頭光
과 身光은 희미한 陰刻線으로 표시되었다.

고려시대의 大形 磨崖石佛에서 볼 수 있는 간략하면서도 圖式화된 표
현이나 미숙한 조각기법등의 특징을 엿볼 수 있어 一世紀경의 造成으
로 추정된다.

三川寺址磨崖如來立像

(높이 三、〇二m, 서울特別市 恩平區 津寬外洞, 보물 六五七호,

圖 17, 참조)

유원지를 지나 三川골로 올라가면 근래에 세운 三川寺가 있고 溪流邊
의 병풍처럼 둘러진 거대한 岩壁에 如來立像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 三
川寺址는 이곳에서 上流를 따라 올라가면 왼쪽편에 있으며 그곳에는 石
造龜趺도 남아있다.

佛像은 비교적 심세하게 조각되었으며 線刻으로써 身光과 圓形頭光을
표현하였다. 素髮의 머리위에는 높직한 肉髻가 놓여있고 相好는 원만한
편으로 眉目이 곱고 양쪽 볼에는 살도 있다. 코는 오뎅하고 입술은 미
소를 띠우며 다물고 있다. 양쪽 귀는 밑으로 처져 있으며 이마에는 白
毫를 끼었던 구멍이 있고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어 있으며 굵은 편이다.
이 岩壁에는 木造架構의 흔적으로 몇군데 흠이 파여져 있으며 불상이
서있는 仰蓮의 대좌앞에는 拜禮石이 마련되어 있다. 이 불상의 造成年
代는 相好의 인상이나 衣文의 처리등으로 보아 一世紀경으로 추정
된다.

迦葉庵址磨崖三尊佛像

(중앙본존상 높이 二、一五m, 경상남도 居昌郡 渭川面 上川里,
보물 五三〇호, 圖 一八참조)

天然洞窟의 直立岩壁에 三尊立像을 彫刻하였는바 本尊佛은 素髮의 머
리 위에 큼직한 肉髻가 놓였으며 相好는 넓은 편으로 작은 눈과 입, 그
리고 크고 뚱뚱한 코, 길다란 귀등이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어깨는 반듯하고 平板的으로 불뿔이 없는 가슴과 곧바로 뻗은 두다리
등이 옆으로 돌린 양쪽 발과 더불어 形式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속살이 보이는데 U字形의 옷주름과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옷자락 등도 역시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 手印은 上品中生印을
취하여 양손을 가슴앞에 모아서 엄지와 인지를 맞대었는데 이것으로 阿
彌陀如來像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좌우 脇侍菩薩도 本尊佛과 비슷한 조각수법을 보이는데 양 옆으로 뻗
은 天衣자락이나 오른손으로 옷자락을 살짝 잡고 있는 모습등은 고려시
대의 장식성과 圖式化的 결과라고 하겠다. 이들 협시보살은 化佛이 조
각된 寶冠을 쓰고 있으며 寶髮이 어깨까지 내려져 있다.

光背는 三尊 모두가 頭光만이 나타났는데 本尊은 寶珠形이며 협시보
살들은 圓形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臺座는 本尊佛에는 火焰形 仰蓮座가
협시보살에는 伏蓮座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三尊佛의 形式과 寶珠形光背의 양식등은 古式을 보이고 있으나 形式
화된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초기인 一〇세기경의 造成으로 추
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圖12. 德周寺 磨崖佛



圖13. 天原 三台里 磨崖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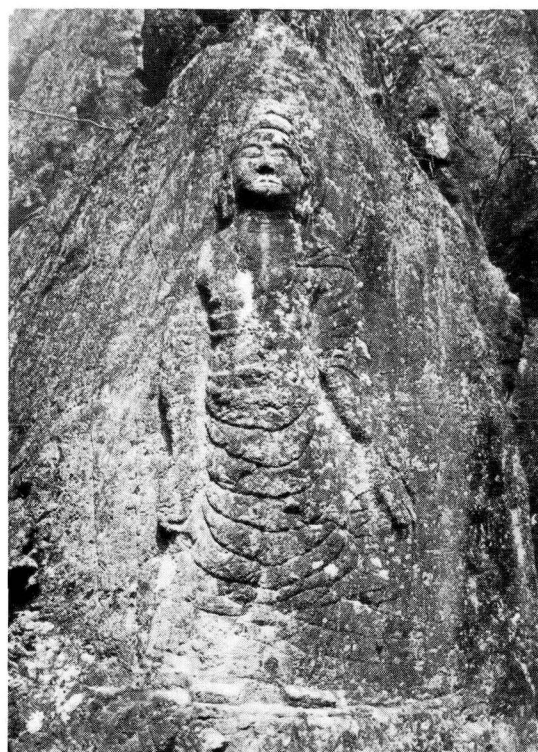


圖14. 金鳥山 磨崖菩薩立像



圖15. 咸陽 馬川面 磨崖如來立像



圖16. 洪城 新耕里 磨崖石佛



圖17. 三川寺址 磨崖如來立像



圖18. 迦葉庵址 磨崖三尊佛像

羅州鐵川里七佛石像

(높이 82cm ~ 90cm, 전라남도 羅州郡 鳳凰面 鐵川里, 보물 461호, 圖 19, 참조)

鐵川里마을의 나지막한 山頂에 있는 鐵川里石佛立像(보물 462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四角에 가까운 圓錐形 바위의 측면에 새겨진 像들로서 현재는 六軀만이 남아있다.

바위 동쪽과 북쪽면에 각각 一軀씩의 坐像이 合掌하고 있고 남쪽으로 立像이 四軀가 나란히 서 있는데 조각수법은 모두가 다 비슷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래 바위 꼭대기에 童子像이, 그리고 서쪽면으로 佛像이 二軀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쪽에는 像을 떼어버린 흔적이 남아있다.

像들은 모두가 素髮의 머리위에 큼직한 肉髻를 엮었는데 相好는 가름한 편이다. 法衣는 通肩으로 옷주름은 陰刻線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像들의 배치된 형태로 보아 方位佛의 성격을 띤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단지 동쪽에 있는 坐像이 觸地印의 手印을 취하고 있는 때문에 四方佛의 개념에 의하여 諸尊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마애불들은 빈약한 체구가 치졸한 조각수법 등 조형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나 方位佛의 형식을 갖춘 유일한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으며 造成年代는 12세기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圖 19 羅州鐵川里七佛石像

五、磨崖線彫佛立像

磨崖佛에 있어서도全體를 岩壁에 陽刻한 것이 아니고 胴體만은 岩壁에 얇은 陽刻, 혹은 線刻 등으로 표시하되 頭像만은 圓刻하여 胴體위에 올려 놓은 특이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安東泥川洞石佛立像, 坡州龍尾里石佛立像, 公州鷄龍山陽化里磨崖佛像 등이라 하겠는데 역시 巨大한 胴體를로서 十一세기경의 造成佛들이다.

安東泥川洞石佛立像

(높이 十二、三八m, 경상북도 安東市 泥川洞, 보물 一一五호, 圖二十참조)

거대한 岩壁인데도 刻線을 陰刻으로 처리한 점은 역시 정신적으로 빈곤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素髮의 머리 위에 높직한 肉髻가 있으며 相好는 원만하고 눈과 눈썹은 길고 입술은 두꺼운 편이다.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으며 通肩한 法衣에는 옷주름이 간략하게 陰刻線으로 조각되어 전혀 입체감이 없다.

手印은 오른손을 배에 대고 왼손은 가슴에 대었는데 두 손 모두 장지와 엄지를 대고있는 中品下生의 手印으로 이 佛像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사실과 아울러 아미타여래임을 알 수 있다.

立像의 발 밑 臺座에는 역시 陰刻으로 큼직한 單瓣蓮華紋을 조각하고 있다. 이 거대한 岩石위의 불상 가까이에 石塔이 건립되어 있는데 본래 이곳에는 燕尾寺가 있었다고 한다. 相好의 인상이나 옷주름의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불상의 造成年代는 十一세기경으로 추정된다.

坡州龍尾里石佛立像

(높이 十七、四m, 경기도 坡州郡 廣灘面 龍尾里, 보물 九三호, 圖二二참조)

길이로 갈라진 두 岩壁을 이용하여 二軀의 立像을 彫刻하였으나 모두 1/3쯤 이하는 분명하지가 않다.

우측 불상은 머리에 둥근 갓을 써서 육계가 분명하지가 않다. 相好는 이마보다 불이 넓어졌으며 눈, 코, 입등이 모두 크고 강조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목이 지나치게 길고 法衣는 通肩인데 두꺼워서 인체의 표현은 거의 없으며 가슴 앞에 裙衣의 매듭이 보인다. 또 法衣는 짧은데 앞부분에서 陰刻線으로 U字形을 평행으로 조각하여 형식화하였으나 두 팔 밑으로 늘어뜨린 주름은 비교적 流麗하다.

岩壁에는 어깨부터 밑의 下體를 조각하고 머리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올려 놓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安東 泥川洞石佛立像과 똑 같다. 그러나 相好의 피상과 옷주름의 형식, 인체의 불균형등은 더욱 後代의 것으로 보이는데 造成年代는 十一세기부터 十二세기경으로 이르는 때로 추정된다.

현재 바위 위에는 石像이, 바위 아래는 石塔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근래에 와서 만든 것이다.

公州鷄龍山陽化里磨崖佛像

(높이 六、一m, 충청남도 公州郡 鷄龍面 陽化里, 圖 22, 참조)

鷄龍山 新元寺에서 新都內로 가는 도중 험준한 용추고개를 半쯤 올라가다가 왼쪽편으로 약 五〇m 정도 되는 곳에 巨大한 岩壁들이 솟아 있는데 그중의 한 바위에 磨崖佛이 조각되어 있다. 이 바위는 폭이 약 六m, 높이가 약 八m쯤 되는 巨岩으로 천연적으로 다듬어진 岩面에 正南

圖 20 安東泥川洞 石佛立像



圖 21 坡州 龍尾里 石佛立像



向하여 線彫로서 佛身을 조각하고 佛頭는 別石으로 造成하여 없었는데 最上端에 肩部를 표현하고 佛頭를 올려 놓았으나 전체의 균형이 잘 어울리고 있다. 佛頭는 뒷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바위에 부착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며 머리는 螺髮로 큼직한 肉髻를 엮었다. 白毫는 없고 눈은 감았으며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으며 相好는 조금 가름한 편으로 근엄한 인상을 준다.

法衣는 어깨에 걸쳐 걸쳐 질게 느려뜨렸는데 裙衣는 臍下에서 圓弧를 그리며 足部에까지 이르렀으며 가슴앞에서 衣帶를 매어 좌우로 전개하였다. 手印은 왼손은 가슴에 들어 內掌하였고 오른손은 자연스릴게 늘어뜨려 內掌한듯 하나 손끝의 마멸이 심하여 분명히 알아보기는 힘들다. 保存은 양호한 편이나 발부분이 마멸이 심한 편이다. 이 佛像은 조각기법이 소박하고 간결하며 衣紋과 온화한 相好가 깊이 인상에 남는다. 이 佛像 바로 옆에는 單間전불이 있어 한 老婆가 살면서 佛像앞에 돌로서 壇을 만들어 茶器供養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佛像을 모시는질이 경영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鷄龍山은 佛敎의 靈地로서 여러개의 大寺刹과 群小의 庵子들이 있으나 佛敎造形은 희귀한 편으로 새로이 조사된 이 巨大한 磨崖佛은 계룡산불적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造成年代는 역시 十一세기에서 十二세기경으로 이르는 때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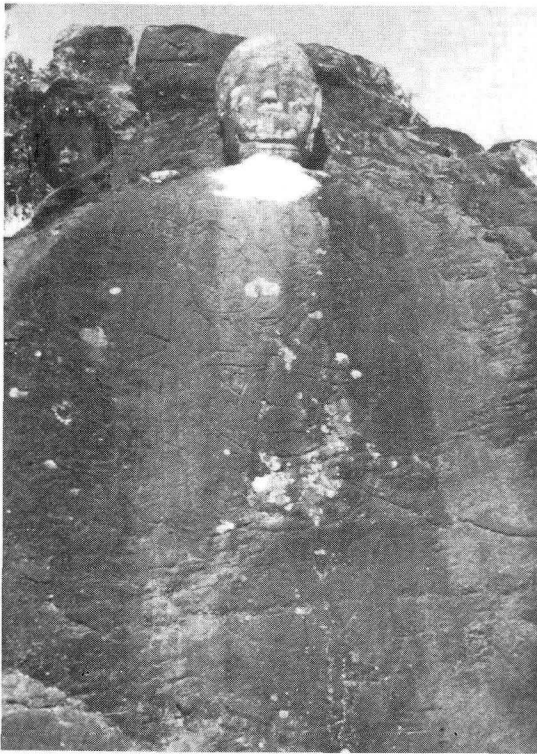


圖22 公州 鷄龍山 陽化里 磨崖佛像



圖23 江華河帖面石造如來立像 岐

六、板石佛像

磨崖佛이라 하면 坐像이던 立像이던 岩壁에 陽刻, 혹은 線彫로 彫刻하는 佛像들을 말한다. 그런데 岩壁은 아니나 板石의 一面을 平平히 다듬고 佛像을 彫刻하였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磨崖佛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高靈開浦洞雅熙二年銘觀音菩薩坐像(本稿圖 4, 참조)이나 江華河帖面石造如來立像 등이라 하겠다.

江華河帖面石造如來立像

(높이 三、二六m, 경기도 江華郡 河帖面 長井里, 보물 615호, 圖 23, 참조)

현재 長井里부락 뒷산의 「石像閣」內에 봉안되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奉氏의 始祖인 奉天祐와 관계있는 石像이라 하여 近年에 奉氏門에서 새로이 石像閣을 짓고 봉안하고 있는데 이 보호각앞에는 관계석비를 건립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造形의 면에서 볼때 이 石像은 분명히 如來立像으로 寺刹의 奉安佛인 것이다.

이 佛像은 광대한 一枚의 板石에 陽刻한 것으로 巨大한 自然石 一枚를 地臺겸 臺座로 삼아 그 上面에 구멍을 파고 立像을 조각한 板石을 꽂아 놓았다. 이 板石은 두께가 一七~二〇cm로 얇은 편이나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불상을 조각하였고 뒷면은 평평하나 거친 면 그대로이다. 板石은 舟形의 擧身光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쪽 上部 周緣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素髮의 머리 위에 큼직한 圓形의 肉髻가 솟아있고 相好는 원만한 편이다. 白毫는 없으며 눈, 코, 입등 각부가 整齊되었으며 입가로부터 양쪽 볼과 눈매에 이르기까지 미소가 가득히 어리어 있다. 양쪽 귀는 길지는 않으나 선명하게 표현되었고 목에는 三道가 둘러져 있어 입가의 미소와 잘 어울려서 자비스러우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준다.

通肩한 法衣는 큼직한 圓弧를 그리면서 胴體 前面을 감싸고 있으며 法衣 下端 밑으로는 裳衣가 발부까지 내려져 있다. 양쪽 팔에 걸쳐진 衣紋은 일부가 옆으로 펼쳐졌는데 왼쪽 衣端이 에리하여 주무른다. 양쪽 발은 옆으로 벌리고 있어 안정감을 주는데 발가락의 표현도 자연스럽다.

手印은 오른팔을 옆으로 벌려 오른손을 外掌하였고 왼손도 가슴에 들어 外掌하였으나 새끼손가락을 펼치고 나머지는 꼬부려 拇指와 人指를 잡고 있다.

光背는 二條線을 陽刻하여 頭身光을 구분하고 있다. 圓形의 頭光에는 二條線紋 사이에 큼직한 珠紋을 장식하였는데 정상에 一珠를 두고 좌우에 二珠씩을 배치하여 도합 五珠이다. 身光은 頭光의 어깨 윗부분으로 부터 길게 내려졌는데 二條線紋 사이에는 頭光과 같이 큼직한 珠紋을 좌우에 대칭되게 六珠씩 도합 一二珠를 배치하였다. 頭身光의 내면에는 별다른 彫飾이 없고 평평하며 二條線밖으로 周緣에까지 太彫의 火焰紋을 장식하였는데 中下部는 생략하고 13 위쪽만을 장식하고 있다.

이 佛像은 各部에서 다소 간략화된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相好의 표현과 法衣의 層段式 처리 頭身光의 형식과 火焰紋등 각부의 수법에서 前代의 여운을 남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石佛의 造成年代는 十一세기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參考文獻

- 文化財大觀(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社)。
- 韓國의 美, 一〇, 佛像편(中央日報社 季刊美術)。
- 國寶(藝耕產業社)。
- 考古美術(韓國美術學會)。
- 各地方道誌 및 郡·邑誌(各地方道誌 및 郡·邑)。